장양순 / 본협회 편찬위원장, 동명건축사사무소
by Chang Yang-Soon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해야 할 일

What We Should Do for Ourselves

한국전쟁 이후 이 승만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 아래 반공(反共) 방일(防日)을 부르짖으며, 국론을 통일하고 흩어진 민심을 한 곳에 모아 전후복구 및 부흥에 노력하려고 하였다. 3공 때는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어 전 국민을 하나로 묶었다. 전자가 자유당의 부패로 유종의 미를 남기지 못한데 반하여 후자는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어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우리나라 부흥의 한 축을 이루었다. 양자는 위로부터 내려온 계몽형이며 리더의 의도에 따르는 방식이란 공통점을 가진다. 결과는 다르나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는 재작년 대망의 월드컵대회를 한일 공동으로 개최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우여곡절 속에 사상초유의 2개국 공동개최를 하게 되었으나 개최 한 두 달을 남기고도 매스컴들이 전하는 해외소식들은 허탈 그 자체였으니, 이는 대부분이 월드컵은 일본에서 열리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 국력의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정부차원의 홍보가 너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었다. 향후 코리아 브랜드의 효과가 얼마이며, 역대 개최국의 성공사례 등을 매스컴들이 떠들었으나 마이동풍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청 앞 광장에 붉은 악마 옷을 입고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인파는 광화문 일대까지 차고 넘쳤으며, 이윽고 전국 방방곡곡에 차고 넘쳤다. "대-한민국"의 연호는 교민들이 있는 전세계 도시들까지 울려 퍼졌고, 4강까지 연승행진을 계속하면서 드디어 전 세계인이 함께 외치는 한국의 소리가 되어 버렸다. 결국 한일 월드컵은 한국 월드컵이 되어 버렸고, 4강 신화의 축구실력보다 붉은 악마가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을 더 깊이 각인시켰다. 이는 IMF사태 이후 찌들었던 한국인의 경제와 자존심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우리 모두의 자랑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이 있으니, 이는 위로부터가 아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대동단결을 이루었다는 동기와 시작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전자들과 또 다른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점이다.

지난해 우리협회는 세 건의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그런데 그 호응도는 낙망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7월에 건축규제에 대한 온라인상의 참여자는 단 45명, 오프라인이 189명이었으며, 8월에 시행된 건축사법 관련은 155명만이 참가하였다. 8000회원의 2~3% 수준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9월에 실시한 공제사업에 대한 것으로 온라인 227명을 포함하여 모두 1,430여명이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회원의 20%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결과였다. 협회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은 회관건립위원회 등에서 의견 제시를 요하는 온라인 상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협회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 보면 '회원들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협력하여 설립하고 유지하는 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회의 원형은 우리 고유의 계(契)에서 찾을 수 있겠다.

멀리 삼한시대로 소급되는 우리의 계는 근세조선에서 향약(鄕約)으로 발전하여 경작의 두레에서부터 애경사는 물론이요 자치적인 사법, 행정권까지 가짐으로 해서 인. 의. 예. 지. 효 등 삶의 바탕과 관치행정을 돕는 일까지 두루 미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비록 조선 말기에 문제가 있었고, 일제가 그 조직이 두려워 해체하는 바람에 그 맥이 쇠잔해졌지만 아직도 시골과 동창, 지인들 사이의 상포계 등은 훌륭히 그 기능을 해내고 있다. 우리가 대형사무소와 작은 사무소로 그리고 대도시와 읍 단위까지 분포한 것처럼 이들도 산하귀천을 가리지 않고 조직됐으며 의무와 권리도 동일하였다.

회원들 중에서도 참여하고 있을 상포계의 경우 회비만을 내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곳은 없다. 적어도 상사에 참여하며 같이 슬픔을 나누게 되어있다.

우리협회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의무가입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가입으로 바뀌었다. 1공이나 3공의 "뭉치면.." 이나 새마을의 상명하달식에서 월드컵 때의 시청 앞 시민처럼 자의로 회원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옛날에 안주하면서 바라기만 하고 있다.

우리회의 정관에 있는 목적 중 공익적인 것 외에 건축사의 권익옹호가 있다. 이제 이러한 권익옹호는 누가 주는 것도 아니요, 회비만 내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회원 각자가 스스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 때만이 얻어지는 것이다. 아니 얻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이 오늘 날 세계의 최강대국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기독교의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나눔과 봉사에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에서는 소득의 1/10을 교회에 냄으로써 선교와 구제에 그 돈을 쓰고 있다. 2002년의 경우 그들 가정의 89%가 연간 1,600달러를 기부하였으니, 이는 수입의 3%를 넘는 금액이다. 또한 성인의 44%가 1주일 중 3.6시간을 몸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들은 이권이나 관계가 없는 곳에 돈과 시간으로 봉사하고 있다.

우리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에 대한 봉사는 소수의 임원과 각 위원회의 위원들뿐이다. 옛날에는 교통과 통신이 여의치 않으니 봉사를 하려해도 할 수가 없었으며, 법에 의한 유일무이한 존재니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는 상전벽해(桑田碧海)로 변하였다. 건축 환경은 온실에서 혹한의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어려워졌다. 우리의 권리와 업무영역은 날로 침범 당하고, 회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일감은 그 반대로 줄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이러한 일감 축소현상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점점 그 속도가 가속화 될 것이다.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회원들은 "협회는 무엇을 했느냐"고 질책한다. 심지어 회비가 아깝다는 등 협회 무용론이 튀어나오곤 한다. 물론 잘못한 것은 질타를 당해야하고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임직원들은 더 열심히 봉사를 해야하며, 협회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일까? 아니다.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수레도 두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듯이 임직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회원은 회원대로 바퀴의 한 축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은 온라인 시대이다. 한 주일에 1시간만 협회를 위하여 현안을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준다면 우리협회의 기반은 공고해지고 따라서 우리의 권익은 신장될 것이다. 회원의 몫은 그뿐만이 아니라 협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까지도 해야 된다. 또한 회원은 미리 미리 의견을 개진하고 협회는 이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하며, 일단 합의된 것은 일치 단결하여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회원과 협회가 하나가 될 때 믿음은 회복되고 불신은 사라질 것이다.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 보라'는 케네디의 말이 아니더라도 올해부터는 봉사의 차원에서라도 인터넷에 참여하여 명실공히 내가 주인인 능동적인 협회를 만드는데 모두가 일어서자.